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2014 **10**  
www.ucac.or.kr



브로드웨이 정통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가 2014년 10월,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이번 <브로드웨이 42번가>는 더욱 화려해진 탭으로 에너지 가득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온몸을 들썩이게 하는 환상의 스텝,  
 그 압도적인 무대를 200% 느낄 수 있는 2014 <브로드웨이 42번가>

1996년 국내 초연 이후 화려한 탭댄스로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던 <브로드웨이 42번가>가 보다 임팩트 있는 무대로 관객들을 찾아올 예정이다.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는 뮤지컬의 본고장인 브로드웨이를 배경으로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한 소녀가 스타로 탄생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화려한 무대와 경쾌한 탭댄스, 누구나 공감하기 쉬운 스토리와 유머로 재공연 때마다 전 연령층에게 꾸준히 사랑 받아왔다. 이번 공연 역시 업그레이드된 군무와 28명의 양상블 배우가 꾸미는 화려한 탭댄스, 검증된 작품성으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 잡을 것이다. 특히 전 세계 <브로드웨이 42번가> 프로덕션 중 최고 난이도를 자랑하는 환상의 탭은 그 매력을 배가시킨다.



VIP석 12만원,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초등학생이상 입장가)  
 문의 | 1599-1980(성우) 275-9623(회관) 주최 | 울산광역시, ubc 울산방송 주관 | 울산문화예술회관, 예술기획 성우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 C o n t e n t s



04

### 기획공연

- \_ 로스메로스 내한공연
- \_ 모닝콘서트
- \_ 브로드웨이 42번가



18

### 시립예술단 공연

- \_ 울산시립무용단 기획공연  
"KD 슈퍼스타 IV"
- \_ 울산시립교향악단 제177회 정기연주회  
"영웅의 생애"
- \_ 울산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어느 가을날의 풍경"

### 기획전시

- \_ 올해의 작가 개인전 - 이귀동展
- \_ 전국야외조각초대展 Ⅲ부



25

### 예술을 말하다

- \_ 예술축제를 찾아서
- \_ 리하르트 슈트라우스(6)
- \_ 재미있는 미술사여행
- \_ 함께하는 음악이야기

### 공연·전시가이드

- \_ 10월의 공연·전시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4년 10월호

통권 178호

발행처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200  
T. 052)227-3884 <http://www.ucac.or.kr>

발행인 이형조

편집인 안종철

기획·편집 박용하·이미경

편집 박용운, 시미정, 권혁민, 김내영

디자인·제작 필리아 T. 052)272-3679

# 로열 기타콰르텟 <sup>55<sup>th</sup></sup> LOS ROMEROS

## 로스로메로스 내한공연



“로스로메로스는 세계에서 유일한, 진정한 클래식 기타 콰르텟이다.  
아니 사실상 기타 콰르텟은 이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 New York Times -

“로메로스는 오직 최고의 앙상블만이 가지고 있는 속임이 없는 우아함과 스타일을  
가지고있다. 발디딜 곳 없는 연주홀의 입석관객들은 단지 연주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 Ann Arbor New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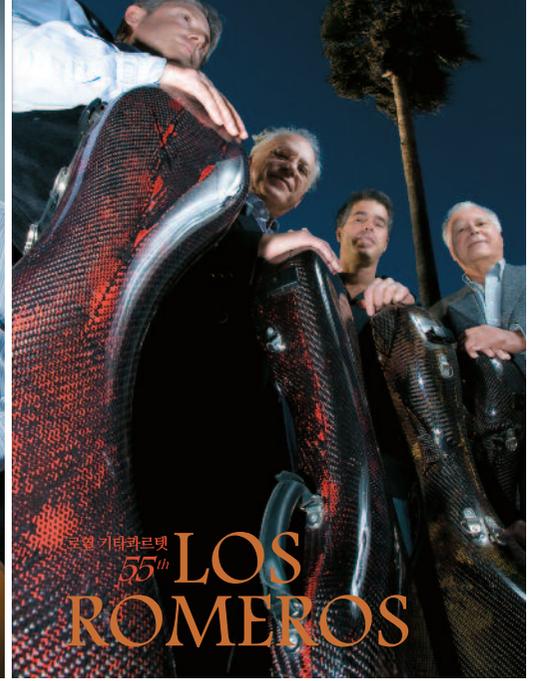
클래식 기타의 로얄패밀리로 불리며 근대 클래식 기타 계의 역사를 써내려온 ‘로스로메로스’가 2008년 이후 6년만인 2014년 10월, 한국을 방문한다.

로메로 가문은 기타콰르텟이라는 형태를 창조해냈다는 찬사를 들을 만큼 클래식 기타계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페인 작곡가 로드리고의 안달루시아 협주곡은 로메로스 4부자를 위해 작곡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번 공연은 로메로스만의 완벽한 앙상블과 테크닉으로 전 세계 음악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지 55주년이 되는 시즌인 동시에 창립자이자 1대 로메로인 전설적 기타리스트 셀레도니오 로메로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 이번 내한 공연의 의미는 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Performance Guide

2014. 10. 16(목)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전석 30,000원(회원 30%, 단체 20%)



로열 기타퀸텟  
55<sup>th</sup> **LOS ROMEROS**

Cast



**페페 로메로 Pepe Romero**

안드레아스 세고비아, 줄리언 브림, 존 윌리엄스 이후 현존하는 클래식 기타 최고의 테크니션 페페 로메로, 탁월한 해석과 완벽한 기교로 가장 중의 거장으로 칭송 받아온 페페 로메로는 연주 인생 50년에 접어든 지금도 독주자로, 오케스트라의 협연자로, 또 로스 로메로스 사중주단 활동으로, 세계를 누비고 있다. 1944년 스페인 말라가에서 "기타계의 황족" 로메로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이자 기타 스승인 셀레도니오 로메로와 함께 7세 때 로페 세빌리아 극장에서 데뷔한 이후, 일가 모두 미국으로 이주, "로메로스 사중주단"을 결성한다. 15세에 녹음한 음반 "플라멩고 페노메노" 이래 현재까지 50여 타이틀 이상의 레코딩 출시, 걸출한 기타리스트이자 그의 영원한 스승인 부친 셀레도니오를 기리며 만든 음반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노래'와 유니세프를 위한 레코딩이 근작이다. 유니세프를 위한 음반에는 보케리니의 기타와 현악 사중주를 위한 오중주곡과 함께 '무지카 녹투나 데 마드리드' (Musica Nocturna de Madrid)의 새로운 편곡이 수록되었다. 로드리고를 비롯한 전설적 작곡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어온 기타리스트 페페와 협연하지 않은 세계 최정상급의 오케스트라는 없다. 뻘뻘한 연주 일정 속에서도 그는 현재 대학 강단과 페스티벌 마스터클래스 등을 통해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셀린 로메로 Celin Romero**

셀린 로메로는 로메로스를 20세기 음악의 가장 빛나는 업적 중 하나로 만든 창단 멤버이다. 40년에 걸쳐 셀린은 탁월한 기량과 우아한 음색을 통해 최고의 기타리스트임을 증명해왔다. 솔리스트로서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페페, 아들 셀리노와의 듀오, 그리고 로메로스 사중주 등 수많은 연주를 통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해왔다. 2000년 2월 스페인 국왕 요한 카를로스 1세로부터 페페, 앙헬과 함께 기사 작위를 받았으며 카톨릭 여왕 이사벨 대 십자가 상 (la Gran Cruz de la Orden de Isabel La Callica)이 서훈되기도 하였다. 로메로스의 멤버로 백악관과 바티칸에 초청되어 요한 바오로 2세와 영국 찰스황태자, 스페인 국왕을 위해 연주했다. 셀린 로메로는 1936년 11월 28일에 스페인의 말라가에서 셀레도니오 로메로의 첫 째 아들로 태어났다. 2~3세부터 아버지로부터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여 7세 때 기타리스트로 정식 데뷔무대를 가졌다. 바쁜 연주일정 중에도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이스탄불, 베오그라드, 뒤셀도르프, 모스크바 등 세계 각지에서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고 있다.



**셀리노 로메로 Celino Romero**

셀리노 로메로 연주에서는 로메로 가문 특유의 비루투오스적인 면모를 보이며 셀리노는 독주연주와 아버지 셀린, 페페, 리토와의 듀오 무대를 통해 수 많은 관객들을 매혹시켰다. 할리우드볼, 카네기 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마드리드 국립극장, 게반트하우스와 서울, 홍콩의 콘서트홀을 비롯한 많은 공연장에서 연주 무대를 가졌다. 한 비평가는 셀리노는 음악적으로 페페 로메로를 가장 닮았다고 평한다. 셀리노는 로메로스의 가장 젊은 멤버로 1990년에 4중주단으로 연주 활동을 시작하면서 로메로스의 3대에 걸친 연주활동이 시작되었다. 셀리노는 특히 젊은 관객층의 폭발적인 인기 통해 클래식 기타음악에 새로운 관객층을 끌어들이고 있다. 스페인의 네르하 동굴에서 열린 로드리고의 '아랑훼즈 콘서트'에서의 연주는 그를 단번에 최고의 기타리스트의 명성을 얻게 했다.



**리토 로메로 Lito Romero**

리토 로메로는 걸출한 역사로 20세기 음악의 틀림없는 이정표를 이루고 있으며 그의 할아버지인 셀레도니오 로메로와 아버지 앙헬 로메로 삼촌인 페페 로메로, 셀린 로메로 등 만인들이 "기타의 황족"으로 칭하는 저명한 로스 로메로스 사중주단의 새 단원이다. 19세부터 세계를 다니며 그의 부친인 앙헬 로메로와 동경, 마드리드,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뉴욕, 멕시코시티, 등의 음악회와 페스티벌 등에서 연주하였다. 1988년 그의 부친인 앙헬 로메로의 음반 '클래스의 터치' (텔락 레이블)에서 함께 연주하였으며 1995년 RCA 레이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인트 마틴 인터 필드 챔버 오케스트라와 비발디의 기타협주곡을 녹음하여 출시하였다. 1991년의전단와이오밍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로드리고의 아랑훼즈 협주곡을 연주하였고 1994-1995년 시즌에는 독주회를 열어 전문적인 기타리스트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그 후 로스 로메로스와 세계를 다니며 연주하고 있다.



세계음악기행 여덟 번째 이야기 2014 모닝콘서트 시즌 7

## 예술가들이 숨쉬는 나라, 독일



### 해설 류태형

-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 월간 객석 편집장
- KBS FM '출발 퀴즈'의 음악 칼럼니스트
- 네이버 [오늘의 클래식] 필자
- KBS 1TV [클래식 오디세이] 음악 코디네이터

주부들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아온 울산문화예술회관의 상설기획공연인 11시 모닝콘서트가 세계음악기행 시리즈 그 여덟 번째 순서로 오는 10월 21일 오전 11시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바흐와 멘델스존, 슈만의 도시인 라이프치히를 주제로 바흐가 봉직했던 성 토마스 교회나 슈만 부부와 멘델스존의 생가, 음악가들과 문인들의 회합장소로 유명한 카페 바움, 괴테 파우스트의 배경이 되었던 아우어바흐 켈러, 최초의 교향악 전문 콘서트홀인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등을 함께 스크린으로 보여주면서 이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 지난 8월 모닝콘서트에 출연했던 KBS클래식오디세이의 음악코디네이터로 활약한 칼럼니스트 “류태형” 씨가 해설을 맡고 연주는 Trio Son Pur(송휘르)가 출연한다. 관객들이 음악가와 독일이라는 나라에 대한 생각을 연계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해설과 함께 연주감상을 도와준다.

한편, 오는 11월 25일 일곱 번째 세계음악기행 “신의 물방울 와인과 샹송 프랑스”편에서는 소믈리에 이승훈, 소프라노 서운정, 피아니스트 윤선빈을 만나볼 수 있다.

### Performance Guide

2014. 10. 21(화) 오전 11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전석 7,000원(회원 30%, 단체 20%), 초등학교이상 입장가

## Program

-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중 '프렐류드'
- 베토벤 '대공' 트리오 1악장
- 멘델스존 피아노 트리오 1번 2악장
- 슈만 '피아노 4중주' 중 안단테 칸타빌레
- 브람스 '자장가' '왈츠'

※ 상기 목록은 공연 순서대로가 아니며 여기서 가감될 수 있습니다.

## Cast

### 서민정 바이올린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전문사, 전문연주자과정 졸업,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동아콩쿨, 중앙콩쿨, 부산콩쿨 1위 및 상위입상, 독일 이프라 니만 국제콩쿨 1위, 윤이상 국제콩쿨 입상, KBS, 수원시향, 부천필하모닉, 코리아심포니, 울산시향, 전주시향, 원주시향, 포항시향등 국내 오케스트라 협연다수, 체코 필하모닉, 비엔나 심포니 챔버, 마인츠 심포니, 센다이 필하모닉, 오사카 간사이 오케스트라 등 해외오케스트라 협연다수  
예술의전당 주최 교향악축제 협연, 실내악축제, 11시 콘서트, 청소년음악회 협연 및 초청연주  
현재 :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예술의전당 음악영재아카데미 출강에 라도 앙상블 멤버

### 이상경 Cello

예원학교 졸업, 서울예고, 토론토 왕립음악원 예비학교, 미국 줄리아드 음대 학사, 예일대학교 음대에서 석사학위, 재학 중 알도 파리소상 비록 예일 음대 동문회상, 일본 쿠사츠 음악 페스티벌 음악감독상 수상, 2003년 워싱턴 국제콩쿨 1등, 특별상, 캐나다 연방콩쿨 1등, Woolsey Hall콩쿨, 토론토 대학콩쿨 등에서 우승, 프랑스 Douai Geroge Prele국제콩쿨, Irving M.Klein국제콩쿨, 줄리아드콩쿨 등 상위 입상, 제 3회 서울 국제 음악 페스티벌 코리아 심포니와 협연, 서울심포니, 대전시향, Yale Philharmonia, Tuscaloosa Symphony, Manhattan Chamber Orchestra, Duouai Symphony, Cathedral Bluffs Symphony, University of Toronto Symphony 등 국내외 오케스트라와 협연 하였다. 금호 문화재단 초청 독주회(금요 콘서트), 세라믹팔레스를 초청 독주회 및 대전예술의전당 초청 연주회, 뉴욕 링컨센터, Merkin Recital홀, 카네기홀, UN본부, 워싱턴 케네디센터(Terrace Theater), 파리 Salle Gaveau, 런던 Cadogan홀, 대만 국립극장 연주, 2004-2005 대전 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 활동, 미국 세종 솔로이스츠 멤버  
현재 : 미국 뉴욕주립대 스토니 부록 음대 박사 과정, 한양대학교 실내악 강의교수 및 충남대학교에 출강, 화음첼로오케스트라 멤버로 활동

### 이혜진 Piano

독일 폴크방 국립음대 (Folkwang Hochschule Essen) Diplom(석사과정), Konzertexamen (최고 연주자 과정) 졸업, 코리아심포니, 대전시향과의 협연, 독일 Bürger meisterhaus 독주회, 뒤셀도르프 Bach Sall 독주회, 세차례의 Neue Aula 독주회, 98년 귀국 독주회, 99년 금호 금요스페셜 콘서트 시리즈 독주회, 2001년 부암아트홀 초청 독주회와 대전시민회관 독주회를 비롯해 독일 Benefiz Konzert, Georgian 대사관 초청연주, 다수의 금호 현악사중주단과의 연주와 첼리스트 조영창과 전국 4개도시 순회연주, 대구 현대음악제, 통영국제음악제, 삼성리움미술관, 금호미술관, 독일문화원, 박창수 하우스콘서트 등 크고 작은 다양한 연주무대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후기낭만 러시아 작품을 주제로 한 네델란드 Maastricht Piano Festival에서 연주, 2003년 미국 워싱턴주의 Meathow Chamber Music Festival에 초청, 다국적 멤버들과 2주간에 걸친 실내악 공연, 일본과 미국에서의 수차례 공연, 2008년 6월, 대전 문화예술의전당 초청 "모차르트 교향악 전국 시리즈"에서 협연, 2009대전 실내악축제에 초청, 2010년 부산 쇼팽프로젝트 시리즈 쇼팽 협주곡협연  
현재 :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와의 음반활동





MUSICAL  
42ND STREET  
브로드웨이 42번가

브로드웨이 정통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가 2014년 10월,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이번 <브로드웨이 42번가>는 더욱 화려해진 탭으로 에너지 가득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온몸을 들쭉이게 하는 환상의 스텝,  
그 압도적인 무대를 200% 느낄 수 있는 2014 <브로드웨이 42번가>

1996년 국내 초연 이후 화려한 탭댄스로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던 <브로드웨이 42번가>가 보다 임팩트 있는 무대로 관객들을 찾아올 예정이다.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는 뮤지컬의 본고장인 브로드웨이를 배경으로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한 소녀가 스타로 탄생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화려한 무대와 경쾌한 탭댄스, 누구나 공감하기 쉬운 스토리와 유머로 재 공연 때마다 전 연령층에게 꾸준히 사랑 받아왔다. 이번 공연 역시 업그레이드된 군무와 28명의 앙상블 배우가 꾸미는 현란한 탭댄스, 검증된 작품성으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 잡을 것이다. 특히 전 세계 <브로드웨이 42번가> 프로덕션 중 최고 난이도를 자랑하는 환상의 탭은 그 매력을 배가시킨다.



Cast



01\_남경주 02\_김영호 03\_박해미 04\_홍지민  
05\_이충주 06\_전재홍 07\_전예지 08\_최우리

뉴 캐스트 카리스마 김영호, 팔색조 최우리!

이것이 진짜 뮤지컬이다. 재능과 인기를 겸비한 뛰어난 내공의 실력과 배우 총출동

2014년 <브로드웨이 42번가>에는 재능과 인기를 겸비한 실력과 뮤지컬 배우들과 신선한 목소리를 낼 새로운 배우들이 캐스팅돼 기대를 더한다.

최근 드라마 <기황후>를 통해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배우 김영호가 악명 높은 카리스마 연출가 '줄리안 마쉬' 역에 이름을 올렸다. 브라운관을 비롯해 앨범 발매, 최근 영화 감독으로 활동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가 오랜만에 뮤지컬 무대로 돌아왔다. 브라운관에서 선보인 검증된 탄탄한 연기력과 매력적인 중저음으로 두 번의 싱글 앨범을 발표했던 이력이 있는 등 노래에도 남다른 재능이 있는 그가 연기할 '줄리안 마쉬'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뮤지컬 배우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여주인공 '폐기 소녀' 역에는 다양한 뮤지컬에서 안정된 가창력과 검증된 연기로 인정 받은 실력과 배우 최우리가 새롭게 합류한다. 매 작품 변신을 거듭하며 팔색조 매력을 뽐내는 최우리가 '폐기 소녀'로 분해 열정과 희망을 노래를 선사한다. 순수함과 열정으로 표현될 그녀만의 '폐기 소녀'가 기대된다.

설명이 필요 없는 국내 대표 뮤지컬 배우 남경주, 박해미, 홍지민을 비롯해 전예지, 이충주, 전재홍은 작품에 대한 애정으로 지난 시즌에 이어 <브로드웨이 42번가> 무대에 오른다. 한국 뮤지컬의 대명사 남경주는 빼어난 연기력과 무대 장악력으로 또 한 번 관객들을 만난다.

폭발적인 가창력과 몰입도 높은 연기의 박해미와 매 회 에너지 넘치는 무대로 객석을 압도하는 홍지민의 깊어진 내공도 기대된다.

지난 시즌 리얼 '폐기 소녀'로 호평을 받으며 성공적인 데뷔를 했던 실력과 신인 전예지가 한 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성숙된 연기를 펼칠 예정이다. 흰칠한 외모와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전재홍과 탄탄한 노래 실력을 바탕으로 뮤지컬 배우로서 자신만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이충주가 올해도 역시 '빌리 로리'로 열연한다.

화려한 비트와 경쾌한 탭댄스, 스펙터클한 군무로 울산시민의 오감을 만족시킬 <브로드웨이 42번가>는 브로드웨이 쇼 뮤지컬의 진수를 보여주며 이들과 함께 흥행 열풍을 예고하고 있다.



Performance Guide

2014. 10. 31(금) 오후 7시 30분  
2014. 11. 1(토) 오후 3시, 7시 30분  
2014. 11. 2(일) 오후 2시, 6시 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VIP석 12만원,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초등학생이상 입장가

문의 1599-1980(성우) 275-9623(회관)

주최 울산광역시, ubc 울산방송

주관 울산문화예술회관, 예술기획 성우



Program

진행/최은영

- 梅蘭菊竹|사계 / 김수진, 이해정, 손애림  
이소연, 최형준
- Basso / 김미정, 양지웅
- 쇠!! 춤이 되고 / 이상희, 남윤주
- 연애의 온도 / 최미정, 신동엽
- 그림에도 불구하고 / 김수진, 강요섭
- 1 vs 일 / 오수미, 최태현
- 사랑, 꽃다워라 / 노연정, 노기현
- 묵향(墨香), 품으니 / 하희원, 김동욱
- 꽃의 유희 / 울산시립무용단

울산시립무용단  
2014 기획공연

# KD 슈퍼스타Ⅳ

2012년 새로운 무용공연 형태를 시행하여  
매공연을 매진이라는 사랑을 받았던 울산시립  
무용단 『나는 무용수다』에 이어 화려한 출연  
진으로 업그레이드해 『KD 슈퍼스타』로 이름을  
달리하여 이번 무대가 그 네 번째 무대이다.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원들을 추천받아  
무대에 올리던 기존방식을 달리하여 이번  
무대는 중앙무대에서 활동하는 젊은 남자  
무용수와 연극인, 서예가를 초빙하여 울산시립  
무용단원과 함께 무대를 만들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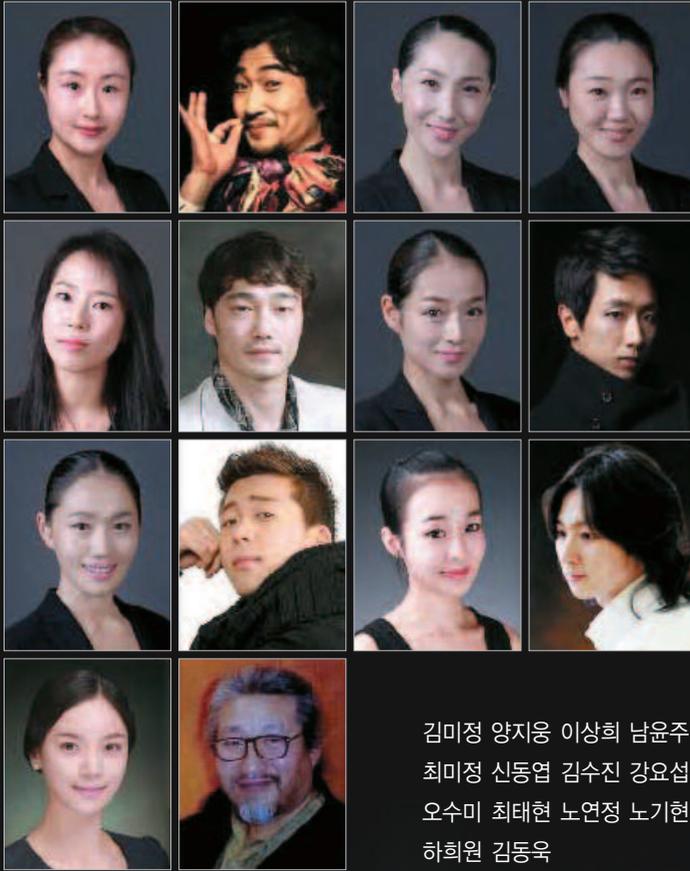
다양한 장르의 콜라보레이션을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 “**축제- 새로운 만남, 새로운  
시도**”를 주제로 다양한 춤의 언어를 전달한다.

Performance Guide

—  
2014. 10. 10(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안무/연출 김상덕(예술감독 겸 안무자)  
훈련지도 박정은(무용단 지도자)

Cast

# KD 슈퍼스타IN



김미정 양지웅 이상희 남윤주  
 최미정 신동엽 김수진 강요섭  
 오수미 최태현 노연정 노기현  
 하희원 김동욱



예술감독 김 상 덕



울 산 시 립 교 향 악 단  
제 177 회 정 기 연 주 회

## 영웅의 생애

완벽한 지휘법과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시민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마에스트로 김홍재 지휘로 교향시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리하르트 스트라우스의 “영웅의 생애”를 연주한다.

국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종화(서울대학교수)를 초청 피아노의 화려한 테크닉과 음악성을 시민들에게 선 보이고자 한다.

### Performance Guide

2014. 10. 17(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회원회원 30%할인, 단체10인 이상 20% 할인)

지휘 김홍재(예술감독 겸 지휘자)

협연 박종화(피아노)

출연 예술감독 외 86명(협연자 포함)

### 바흐\_푸가 G단조 BWV 578 "소푸가"

Bach\_Fugue in G minor BWV 578 "The Little"

바흐는 오르간을 위한 독립된 푸가를 몇 곡 작곡했다. 그 대부분이 모두 바이마르 시대와 그리고 그 이전의 작품이다. 그 중에는 레그레찌(G. Legrenzi)의 주제에 의한 것과 코렐리(A. Corelli)의 주제에 바탕을 둔 곡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로서 당시의 이탈리아 양식을 연구한 자취가 뚜렷하다. 이 g단조 푸가도 그 하나로서 주제의 아름다움과 유창한 작법을 특징으로 하여 바하의 오르간 곡 중에 서도 가장 애호된 곡의 하나이며 스토크프스키(L. Stokowski)의 관현악 편곡에 의한 것도 널리 알려져 있다. 더구나 이 곡이 g 단조의 작은 푸가라고 불리어지는 것은 같은 조의 (환상곡과 푸가, BW 542)와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작곡 연대는 바이마르에서 궁정 오르가니스트로서 활약하고 있던 1709년경에 작곡되었다. 이 곡의 가장 큰 매력은 주제의 아름다움에 있다. 이것은 먼저 소프라노에 나타나고 알토가 5도위에서 응답하나 주제의 너무나 정돈된 아름다움에 조조적인 응답의 규칙을 감히 깨뜨리고 있는 것이 주목할 가치가 있다. 또 다른 가락은 그 특수한 응답법과 이하의 주제 제시에도 언제나 수반 하는 고정 대악구를 나타낸다. 주제는 다시 테너와 베이스에 제시되고 짧은 간주부를 거쳐 제2전개부로 이어진다. 그사이에 병행조인 Bb장조로 조바꿈하여 c단조의 제 3전개부를 거쳐 마지막에 다시 으뜸조로서 원형 주제가 페달 에 나타난다.

###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 1번

Beethoven\_Piano Concerto No. 1 in C major op. 15

#### 1악장 Allegro con brio

협주곡 풍 소나타 양식이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에서 3번까지의 1악장 빠르 기말은 모두 알레그로 콘 브리오이다. 화려한 연출 효과를 내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 제1바이올린, 비올라, 더블베이스가 가벼운 기분으로 신선한 주제를 조용히 내염 곧 오케스트라가 이를 힘차게 반복한다. 이것이 일단락되면 다시 바이올린이 중심이 되어 좀 더 우아한 제2주제를 연주하고, 다시 오케스트라의 서주 이후로는 독주 피아노가 홀로 카덴차풍의 선율을 화려하게 펼쳐나간다. 피아노의 활약이 일단락되면 다시 오케스트라의 무대가 와서 화려한 잔치를 벌이게 되고, 끝으로 피아노의 카덴차와 오케스트라의 강렬한 화음으로 끝난다.

#### 2악장 Largo

3부 형식. C 장조의 1악장과 3악장 사이의 이 악장이 A플랫장조인 것은 당시로서는 드문 경우이다. 시적이고 아름다움을 주는 악장이며, 외면적인 효과를 의도한 1악장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피아노가 우아하고 평온한 기분으로 아름다운 주제를 내면 저 음 현악이 뒷받침 한다. 이것을 오케스트라가 받아서 반복하면 피아노와 오케스트라의 환상적인 협주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곱게 펼쳐진다.

#### 3악장 Rondo .Allegro scherzando

스케르찬도이지만 대단히 큰 스케일과 격렬함을 느끼게 하는 악장이다. 독주 피아노가 처음부터 격양된 표정으로 짙막한 주제를 내면 오케스트라가 투티로 반복하고 다시 피아노가 강렬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계속해서 펼쳐지는 피아노와 오케스트라의 경쾌한 대화는 베토벤 다운 힘을 갖고 진행되고 이윽고 오케스트라의 인장적인 코다로 곡을 마친다.

R. 슈트라우스 교향시 “영웅의 생애”

Richard Strauss Symphonic Poem "Ein Heldenleben" op.40

1899년에 초연된 이 명작은 자유분방한 기법을 가지고 자신 만만하게 쓴 그의 야심작이라고 하겠다. 영웅이라는 제목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으로 슈트라우스의 자서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하나의 전기의 전형적인 음악 스타일이다. 스케일이 웅대한 이 작품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한 최고의 교향시라고 슈만과 같은 사람은 말하였다. 이 작품은 6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고전음악처럼 일정한 형식이 없으며 하나의 표제를 묘사했다고 하겠다. 극적인 흥분과 아울러 아름다운 선율에 행복을 찬미한 조화된 하모니 등을 음미할 수 있을 것이다.

영웅(Der Held) 서주 없는 쾌활한 곡으로 영웅을 제시한 테마로 시작된다. 이 테마는 영웅의 전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의 위력이 여실히 나타나 있다. 영웅의 적수(Des Helden Widersacher) 영웅과 인간의 대립인데, 물이 해와 적대시가 강조된다. 영웅의 애인(Des Helden Gefährtin) 영웅의 애인, 말하자면 반려자의 아름다운 테마가 독주 바이올린으로 나타난다. 영웅의 동기와 함께 이야기하는 듯한 부드러운 선율로 전개된다. 영웅의 싸움터(Des Helden Walstatt) 트럼펫이 울리는 가운데 싸움터의 장면이 나타나며 대담하고 용맹스런 영웅의 모습이 여실히 표현된다. 위풍당당한 개신장군의 음악이 울려 나온다. 영웅의 평화 산업(Des Helden Friedenswerke) 영웅의 업적이 나타난다. 여기에서(돈키호테)의 테마가 나타나는 것을 비롯하여 슈트라우스의 작품의 테마가 단편적으로 나타난다. 영웅의 은퇴와 완성(Des Helden Wehflucht und Vollendung) 느린 템포의 곡이다. 영웅의 적수도 이제 그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된다. 목동의 피리 소리를 연상케 하는 평화롭고 목가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이제 영웅은 여생을 안일하게 보내려는 것이다. 이제 영웅은 옛날의 투쟁을 회상한다. 투쟁도 없으며 정열도 없다. 평화와 위안, 정화와 도취가 물줄기처럼 퍼질 따름이다.



01\_김홍재 지휘 02\_박종화 피아노



Program

- 바흐 | 푸가 G단조 BWV 578 "작은푸가"  
Bach |  
Fugue in G minor BWV 578 "The Little"
- 베토벤 | 피아노 협주곡 제 1번  
Beethoven |  
Piano Concerto No. 1 in C Major op. 15
- 휴 식 -
- R.슈트라우스 | 교향시 “영웅의 생애”  
Richard Strauss |  
Symphonic Poem "Ein Heldenleben" op.40

울 산 시 립 합 창 단 제 9 1 회 정 기 공 연

# 어느 가을날의 풍경



울산시립합창단 제91회 정기연주회의 지휘봉을 잡는 윤의중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를 졸업하고, 도미하여 University of Cincinnati 음악 대학원(MM, DMA)에서 합창지휘를 전공하였다. 뛰어난 음악성과 정확한 지휘로 세련된 합창을 만들어낸다는 평가를 받으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창원시립합창단의 예술 감독과 한세대학교 예술학부 일반대학원 합창지휘과 교수 및 학부장으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어느 가을날의 풍경'으로 준비한 이번 음악회는 현악앙상블과 함께하는 1부 '현대 합창', 베토벤의 운명,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악곡 등 16곡의 클래식 메들리로 구성된 2부 '재미 있는 합창', 3부 '미국민요와 흑인영가', 모듬 북 등 타악기의 반주가 곁들여진 4부 '한국의 얼'에 한세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는 김희연 교수의 안무와 연출이 곁들여져 더욱 재미있고 특색있는 연주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윤의중 지휘자

지휘자 윤의중은 어릴 때부터 음악적인 환경에서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시작하였으며, 서울예원, 예고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를 졸업하고, 도미하여 University of Cincinnati 음악 대학원(MM, DMA)에서 합창지휘를 전공하였다. 뛰어난 음악성과 세밀하고 정확한 지휘로 감동적이고 세련된 합창을 만들어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윤의중 지휘자는 국제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04년에는 Salt Lake City에서 실시한 International Chorale Festival 에 초청받아 공연과 세미나를 하였고, 2005년에는 Minneapolis 에서 열린 International Boy's and Men's Choir Festival에서 한국 최초로 객원지휘자로 초청받아 세계 각 국에서 선발 된 500여명의 연합 합창단을 지휘하였으며, 2006년 3월에는 덴마크에 있는 Herning 시의 Man's & Boy's 합창단에 객원지휘자로 초청받아 지휘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 합창 총연합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였고, 2004년 독일 브레멘 합창올림픽, 2008년 오스트리아 그라츠 콰이어 올림픽 게임, 2010년 서면과 이어 올림픽게임, 전국 일본 청소년 콩쿨, 2012년 7월 미국 신시네티 콰이어 올림픽 게임, 2012년 7월 IFCM 에서 주최하는 베이징 Chorale Summit에서 심사위원 및 강연에 초청되는 등 각종 유명 합창대회에 초청받은 바 있다. 2014년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합창경연대회 및 컨퍼런스에서 국제심사위원 및 "한국합창음악의 연주기법 및 해석"에 관하여 강의를 맡았다. 서울레 이디스싱어즈 음악감독, 한국합창연구학회회장역임 및 운영위원, 한국합창지휘자협회이사, 한국교회음악협회 이사, 한국대학합창연합회 이사 등 많은 직분을 담당하며 한국의 합창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세계최대의 교회인 Youido Full Gospel Church (여의도순복음교회)의 Bethlehem Church Choir (베들레헨찬양대)와 20013년 새로 창단된 코리아오페라스타스앙상블 지휘자 겸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2005년 창원시립합창단의 상임지휘자로 선 지휘자 윤의중은 한세대학교 예술학부 일반대학원 합창지휘과 교수 및 학부장으로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현재 창원시립합창단 예술감독을 맡아 다양한 장르의 음악, 깊이 있고 세련된 합창음악을 창원시민들에게 선사하고 있다.

### 현대합창

Mass for Choir, String Orchestra and Piano / Steve Dobrogosz  
(String)

- Introitus
- Kyrie
- Gloria
- Credo
- Sanctus
- Agnus Dei

- INTERMISSION -

### 재미있는 합창

Go! Classic (클래식 메들리) / 오병희 편곡

1. 베토벤, 운명
2. 립스키코르사코프, 왕벌의 비행
3. 모차르트, 아이네크라이네 나흐트 뮤직
4. 포스터, 메기의 추억
5. 모차르트, 터키행진곡
6. 그리그, 페르퀀트
7. 비발디, 사계
8. 드보르작, 신세계 교향곡
9. 번스타인,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10. 네케, 코시코스의 우편마차
11. 하이든, 트럼펫 콘첼토
12.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 인형
13. 주페, 경기병 서곡
14.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
15. 차이코프스키, 1812년 서곡
16. 멘델스존, 축혼 행진곡

### 미국민요와 흑인영가

Shenandoah / Mack Wilberg  
A Shout of Praise / Keith Hampton

### 한국의 얼

건, 곤, 감, 리 / 우효원  
(모듬북, 팀파니)

- 건 - 하늘, 봄, 정의
- 곤 - 땅, 풍요, 민족의 정의
- 감 - 달, 물, 생명력 - 역사의 맥박소리
- 리 - 해, 불, 광명과 발전

아리랑 / 우효원



윤의중 지휘(창원시립합창단 예술감독)

### Performance Guide

2014. 10. 21(화)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전석 5,000원(회원 30%, 단체 20% 할인 적용)

지휘 윤의중(창원시립합창단 예술감독)

안무 및 연출 김희연(한서대학교 출강)

반주 피아노, 현악앙상블, 모듬북 등 타악기



• 상심의 바다 I



울산문화예술회관 예술창작지원

# 올해의 작가 개인전·2014 「10월의 작가 이귀동展」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는 지역 작가들의 창의적이고 독창성 있는 창작품을 발굴하여 울산 전시 예술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한 올해의 작가 개인전에 「10월의 작가 이귀동展」을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상설전시 공간 ‘갤러리 씬’에서 개최한다.

사진작가 이귀동은 외형적인 바다가 아닌 작가의 심상에서 우러나오는 바다를 ‘상심의 바다’라는 테마로 다양한 바다 사진작품들을 선보인다.

바다, 하늘, 물거품, 자갈, 해무, 섬, 그리고 갈매기 등의 재미있는 소재사용과 사진기의 장시간 노출을 이용해 파도와 해무의 움직임으로 작가의 고독함과 꿈과 이상에 대한 고뇌를 표현하였다.



• 상심의 바다 III



• 상심의 바다 II



작가는 “꿈꾸러 바다로 갔으나 꿈대로 안 되니까 상심으로 바뀌었다.”며 작가는 바다에서 꿈과 희망을 품기도 하고 때론 슬픔과 절망감을 느끼는 뜻대로 되지 않는 바다를 이야기 보여준다.

작가의 감정을 보여주듯 흑백과 모노톤의 사진 작품들 속에는 마치 비상을 꿈꾸는 한 마리 갈매기를 통해 인간 삶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그린 감동적인 소설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갈매기를 연상케 하기도 한다.

특히, 작가의 뚜렷한 감정변화도 사진을 통해 엿볼 수 있고, 오늘날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경각심과 일상 속 바쁜 현대인들에게 사진 속 바다를 통해 잊고 있었던 저마다의 꿈과 희망을 되새겨 보는 전시가 되길 기대해 본다.

부족한 전시공간을 해소하고 지역의 유망작가들을 발굴하여 창작 활동을 지원 하고자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올해의 작가 개인전」은 합동전시와 릴레이 개인전으로 일반 시민 및 지역작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작가들에게 가장 큰 후원은 많은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아 작품을 감상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귀동 Lee, Qui-Dong

| 개인전 |

- 2011 꿈꾸는 바다(영상아트 갤러리, 울산)
- 2013 인문학 서재 몽돌 기획 초대전(울산)

| 단체전 |

- 2013 동진-바라보는 두 개의 마음(영상아트 갤러리, 울산)
- 2011 내면의 창 - 울산국제사진페스티벌 후원전(CK갤러리, 울산)
- 2010 안과 밖(영상아트 갤러리, 울산)
  - 아날로그-울산국제사진페스티벌(H갤러리, 울산)
- 2009 소품전(영상아트 갤러리, 울산)
- 2008 리뷰 울산(영상아트 갤러리, 울산)
- 2005 울산이야기(문화예술회관, 울산)
- 2004 울산사람들 창립전(문화예술회관, 울산)
- 1996 울산문화재 사진전(문화예술회관, 울산)

Exhibifton Guide

10. 1(수) ~ 10. 30(목), 30일간  
갤러리 씬

문화예술회관 예술창작지원

## 전국 야외조각 초대전 Ⅲ부

시민들에게 늘 열려있는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고 있는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는 야외공간을 이용한 연중상설 전시가 진행 중이다.

10월 9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 야외전시장 일원에서 열리는 제Ⅲ부 전시에는 김리경, 김상일, 김질현, 문성권, 박주현, 손원이, 안시형, 이우진, 정운식, 최일호 작가의 야외조각 작품 20점이 선보인다.



• 01

철 작업을 선보이는 김리경 작가는 여행가방 실루엣을 자르고, 접고, 두들겨서 만들어진 형상을 공간에 설치하여 공간과의 관계를 작품으로 형상화하였다.

김상일 작가는 차가운 스테인리스 스틸을 구부려 만든 드럼라인, 철 부식을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색감처리를 한 붉은 피아노와 같은 흥겹고 재미있는 악기들을 표현한 작품을 출품하였다.

김질현 작가는 에스테르 수지 위에 화려한 색감으로 가족을 형상화하여 만든 '나들이'라는 테마의 작품은 관람객이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석조를 사용하지만 삭막한 도시에 따듯함을 불어넣는 듯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문성권 작가는 부드럽게 연마한 대리석의 '가족'이란 작품은 더욱 운치 있는 풍경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 Exhibifton Guide

2014. 10. 9(목) ~ 2015. 1. 31(토) 115일간, 야외전시장

초대작가 김리경, 김상일, 김질현, 문성권, 박주현, 손원이, 안시형, 이우진, 정운식, 최일호



• 02

박주현 작가는 확대되어진 망치 손잡이 부분을 조각하여 '소년의 꿈' 또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테마로 조형물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가의 특유방식이 흥미롭다.

동물형상을 강렬한 색채와 함께 표현한 손원이 작가는 관람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인데 특히나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안시형 작가는 화강석과 혼합재료를 사용하여 '거대한 강돌'이란 테마로 흔히 보던 소재에서 또 다른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을 출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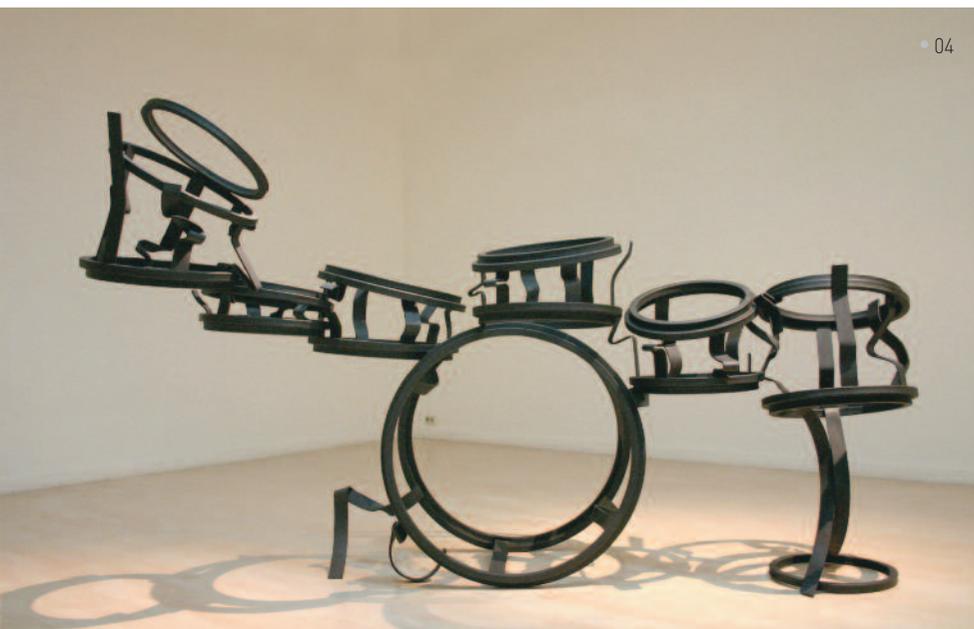
이우진 작가는 대리석을 이용, 때로는 매끈하고 정교하게 연마하고, 한편으로는 자연의 조각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 석조 조각의 다양한 기법을 보여준다.



• 03

강렬한 '불소'와 '아톰(ATOM)'으로 팝아트적인 작품을 전시하는 정운식 작가와 익살스러운 '채플린'과 '닥스 훈트'를 철재로 만들어 선 보이는 최일호 작가는 젊은 작가 특유의 기발함이 눈길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연중상설전시로 마련되고 있는 전국 야외조각 초대전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조각예술 활성화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국의 조각가 21명과 울산 조각가 9명의 다채로운 야외 조각품 60점이 총 3부에 걸쳐 각 115일씩, 345일 동안 연중 상설로 전시된다.



• 04

- 01 \_ 안시형작 <거대한 강돌>
- 02 \_ 정운식작 <Bull 황소>
- 03 \_ 김질현작 <나들이>
- 04 \_ 김상일작 <드림라인>



• 05

## 전국 야외조각 초대전 Ⅲ부

- 05\_ 최일호작 <본능적인 채플린>  
 06\_ 박주현작 <대장장이>  
 07\_ 이우진작 <무 제>



• 06



• 07

다양한 재료로 색다른 질감과 무게감이 주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전국의 조각 작품들로 야외에서 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 전시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밤에도 작품 감상이 가능하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공간에 작품과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낼 도심 속의 문화공간에서 도시의 일상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작은 여유와 즐거움을 느껴보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 초대작가

- 울산 김 리 경 •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울산미술협회, 전국조각가회 회원  
 경남 김 상 일 • 신라대학교 대학원 졸업, 부산미술대전 입선 3회, 우수상 수상  
 울산 김 질 현 •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조소전공 졸업, 전국조각가협회전  
 울산 문 성 권 •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부산미술대전 특선·우수상 수상  
 부산 박 주 현 • 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업, 부산대·동아대·울산대 출강  
 울산 손 원 이 • 영남대학교 조소과 및 동 대학원 수료  
 경남 안 시 형 • 영남대학교 대학원 졸업, 개인전 2회, 초대·단체전 80여회  
 경남 이 우 진 • 개인전 4회, 경상남도 건축조형물 심의위원  
 경남 정 운 식 • 경상대학교 졸업, 신화예술인촌 조형미술 대상 수상  
 울산 최 일 호 • 홍익대학교 대학원 졸업, 개인전 5회, 전국대학생조각대전 대상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 Part-1 예술을 말하다

예술축제를 찾아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Ⅵ)

재미있는 미술사 여행

함께하는 음악이야기

## 10월의 공연·전시





Speak of Art

# 아름다운 두브로브니크의 근사한 여름축제

● 글 윤하정

KBS앵커, TBC 방송기자들 방송활동과 YES24 공연 매거진 등의 공연리뷰 및 인터뷰 기자로 활동하였으며 <지금 당신의 무대는 어디입니까>를 저술하고 현재 영국 휴학 중이며 유럽 공연기행을 준비중이다.

몇 년 사이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각광받고 있는 여행지는 크로아티아가 아닐까 합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한 TV 예능프로그램에 소개돼 때늦은 관심을 한 몸에 받았지만, 지중해에 자리 잡은 크로아티아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세계문화유산이 공존하는 낭만적인 여행지로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휴양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드리아 해의 진주로 불리는 두브로브니크(Dubrovnik)는 구도심을 감싸고 있는 크림색의 성벽과 그 안에 다소곳하게 자리 잡은 대리석 집들, 잘 익은 오렌지처럼 탐스러운 지붕, 곳곳에 정박해 있는 잘 생긴 보트들이 어우러져 크로아티아 내에서도 손꼽히는 여행지인데요. 지중해의 쏟아지는 햇살과 잘 가꾸어진 도심, 그래서 포동포동 살 오른 아기 피부처럼 뽀얀 두브로브니크는 어디에 카메라를 들이대도 한 장의 그림엽서가 되는 마법의 도시이죠.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는 여름 동안 성대한 축제가 열리는데요. 이 기간이면 세계의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두브로브니크는 음악과 춤, 사람들의 웃음꽃이 끊이지 않은 더욱 활기 있는 도시가 됩니다. 저도 이 멋진 축제를 즐기기 위해 두브로브니크로 날아갔습니다.



## 아드리아 해의 진주 두브로브니크

아드리아 해에 접해 있는 두브로브니크는 7세기에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15세기와 16세기에는 상선이 활발하게 바다를 누비며 부를 쌓았다고 합니다. 필레 문을 통해 구시가에 들어서면 당시 이 도시가 얼마나 번창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성곽으로 둘러싸인 구시가는 사방이 반질반질, 매끈매끈, 마치 중세를 배경으로 한 영화의 세트장 같습니다. 13세기부터 베네치아 공화국의 지배를 받았던 두브로브니크에도 르네상스가 꽃을 피우는데요. 구시가에는 스폰자 궁전, 렉터스 궁전 등 르네상스 양식의 건축물이 세워지는가 하면 필레문 왼쪽에는 1317년 프란체스코 수도원이 세워지는데 내부에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약국도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는 1448년 대형 수로 시설인 오노프리오 분수가 들어서는데요. 지금도 일부에서는 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스폰자 궁전까지 중앙로라 할 수 있는 스트라둔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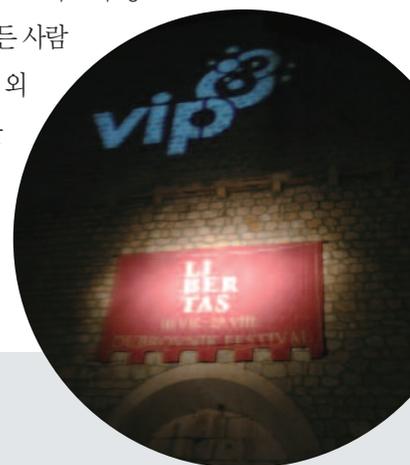
로를 따라 걷다 보면 곳곳에 골목길이 이어지면서 수많은 레스토랑과 노천카페, 기념품 가게들이 관광객들을 유혹하는데요. 조금만 발길을 돌리면 양증맞은 돌계단을 따라 굽이굽이 집들이 이어지고, 다른 방향으로 성벽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새하얀 보트들이 정박된 파란 바다가 넘실거립니다. 사방에 보석상자가 숨겨진 미로 속을 헤매는 기분인데요. 이 구시가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요새인 두브로브니크의 성벽은 해안을 따라 구시가를 감싸고 있는데, 베네치아 공화국 시절에 지어져 이후 여러 차례 증축되며 외세로부터 이 도시를 지켜왔습니다. 총 길이가 약 2km, 최고 높이는 25m에 달하는데요. 특이하게 성벽 위를 쭉 걸을 수 있게 길이 나 있습니다. 성벽 위를 걷자면 적어도 한 시간은 걸리는데요. 가릴

것 하나 없는 따가운 햇볕아래 성벽 투어를 하는 것은 꽤나 힘든 일이지만, 성벽 위에서 다각도로 내려다보는 뽀얀 구시가의 속살과 그 너머로 펼쳐진 에메랄드빛 아드리아 해는 영원히 잊히지 않을 듯이 뇌리에 파고듭니다. 크로아티아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몬테니그로 등과 함께 구 유고연방을 이루다 지난 1991년에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세르비아가 전쟁을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두브로브니크 역시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았는데요. 성벽 위를 걷다 보면 여전히 남아 있는 전쟁의 처참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럽의 지식인들은 이 아름다운 구시가를 지키기 위해 인간 방패가 돼서 포격에 맞섰다는 말도 있는데요. 성벽 위에서 두브로브니크의 구시가를 한 눈에 담다 보면 그 마음이 절로 이해될 겁니다.



필요 없습니다. 성벽 안 모든 공간이 완벽한 무대가 되고, 모든 돌계단이 열린 객석이 되거든요. 성문으로 배우들이 등장하고, 2층 발코니에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는가 하면 궁전 앞마당에서는 무용수들이 깃털처럼 가볍게 춤을 추죠. 평소에는 지금을 살아가는 두브로브니크 사람들의 터전인 이곳이 축제기간에는 음악과 연극, 춤과 함께 연출이 따로 필요 없는 상상의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페스티벌이 시작하는 날에는 주택가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시가로 몰려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놀랍도록 화려한 파티 복을 차려입고 놀랍도록 화사한 미소를 머금고 구시가로 쏟아지는 사람들을 보는 것도 큰 구경거리입니다. 보통 여행객들에게만 관광 상품이 돼 버린 다른 도시의 페스티벌과 달리 두브로브니크에서는 현지인들에게도 한 여름의 축제가 시작된 것이죠. 오프닝 행사가 끝나면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밤늦도록 춤과 노래가 이어지면서 철옹성 같은 성벽 안은 웃음꽃이 만개한 사람들과 현란한 불빛,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는 음악소리로 북적이는데요. 이 여름 동안 두브로브니크의 성문을 통과한 모든 사람들은 축제라는 외판 시간과 공간에 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 두브로브니크 여름 축제

1950년에 시작된 <두브로브니크 여름 축제(Dubrovnik Summer Festival)>는 매해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열립니다. 처음 'Walls of Stone, Heart of Art'라는 제목 아래 심장이 그려진 이 축제의 포스터를 아무 생각 없이 바라봤는데, 그러고 보니 성곽으로 둘러싸인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의 모습이 딱 심장 모양이네요. 일찍이 문학과 예술이 꽃을 피웠던 두브로브니크인 만큼 이 페스티벌은 크로아티아의 문화예술을 대표하면서 동시에 유럽의 예술가들과 함께 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내전 중이던 1992년에는 오프닝 행사 대신 두브로브니크 극작가인 이반 굴리치(Ivan Gundulić)의 <자유의 춤>가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왔는데, 이때 황폐해진 스트라둔 대로의 시민들은 창문에

촛불을 밝히며 그들만의 엄숙한 축제를 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페스티벌이 시작하는 7월 10일이 되면 항상 필레문 위에 'Libertas(자유)' 라는 깃발이 붙습니다.

50일 가깝게 이어지는 축제에서는 클래식 연주회에서 연극, 오페라, 발레 등 다채로운 공연이 구시가 곳곳에서 펼쳐지는데요. 따로 공연장이나 특별한 무대 연출이

### 두브로브니크 여름 축제

: 클래식 중심의 종합예술제

(홈페이지 : <http://arhiva.dubrovnik-festival.hr/dubrovnik-summer-festival>)

개최시기 매해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개최지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찾아가는 법 두브로브니크 국제공항, 유럽 각지에서 경유 가능

특징 구시가 곳곳에서 오픈에어로 다수 진행, 유료와 무료 공연이 있음.



## 두브로브니크 이모저모

두브로브니크로 날아가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크로아티아로 바로 가는 비행 편이 없고, 유럽 각지를 경유해 들어갈 수 있지만 비행 횟수가 많지 않은 데다 가격도 비싼 편입니다. 장시간 페리를 타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탈리아 베네치아나 바리에서 배편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특히 바리에서 밤새 페리를 타면 뱃전에서 두브로브니크의 일출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크로아티아의 화폐는 쿠나(HRK)인데요. 1쿠나에 우리 돈으로 2백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달러나 유로, 파운드 등을 가져가면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서유럽에 비해 물가가 비싼 편은 아니지만, 관광수입이 큰 몫을 차지하는 크로아티아인만큼 주요 관광지의 각종 요금은 받을 만큼 받아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축제가 열리는 여름, 두브로브니크는 관광 성수기이기

때문에 호텔 등의 숙소는 비싼 편인데요. 그래서 많은 여행객들이 'sobe(방)'라는 형태의 민박을 이용합니다. 언덕 위 가정집들이 제공하는 숙소인데요. 대부분 욕실이 딸린 방을 내주고 따로 돈을 지불하면 간단한 아침식사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구시가지에서는 상당히 떨어진 편이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돌계단을 한참 걸어 올라가야 하지만, 두브로브니크 현지인들의 삶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죠. 무엇보다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는 소리 없는 두브로브니크의 야경은 무척 아름답습니다. 또 주택가의 상점에서 판매하는 먹을거리들은 거품이 있는 도심과 달리 꽤 저렴한데요. 이 지역의 자랑인 맛좋은 과일과 와인 등을 베란다에 펼쳐놓고 황홀한 야경을 즐기는 것도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겁니다.



독일 후기 낭만파를 대표하는 대작곡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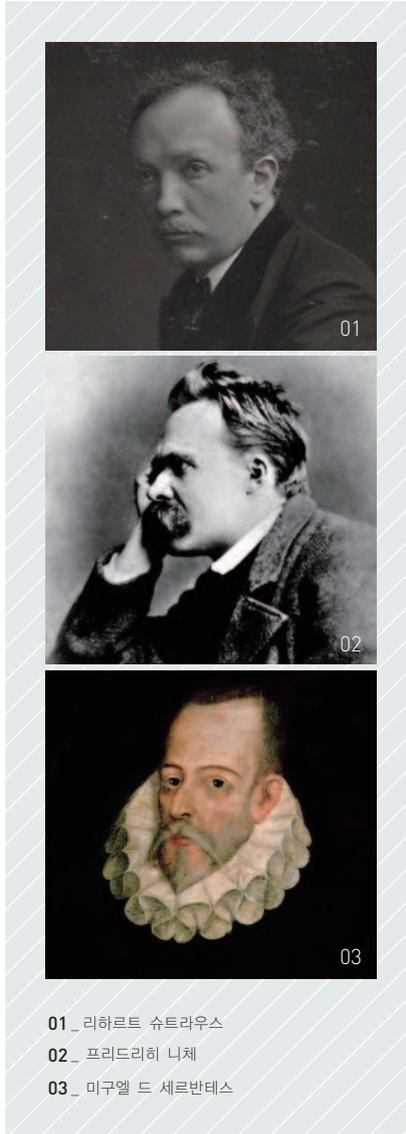
# 리하르트 슈트라우스(VI)

슈트라우스는 1895~98년 사이에 교향시 '털 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돈키호테', '영웅의 생애'를 잇달아 발표하였다. 이즈음 그의 명성과 창작력은 이미 정점에 달해 있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인류의 탄생에서 발전까지의 과정을 그린 대교향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최고의 작품으로 인정받는다.

\*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Op.30  
아서 클라크의 공상과학소설을 원작으로 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영화사에 한 획을 그은 작품이다. 하지만 이 영화의 명성만큼이나 유명한 장면은 영화의 서두, 교향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울려 퍼지면서 인류의 탄생을 묘사한 장면이다. 이 교향시는 풍부한 악상과 치밀한 묘사력, 탁월한 관현악 기법으로 이 장르의 최대 걸작으로 유명하다.

슈트라우스는 1882년부터 뮌헨의 루드비히 막시밀리언 대학에서 철학, 미학, 예술사를 공부했다. 그 당시 슈트라우스가 접한 철학서 중에는 니체의 저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있었고 니체의 사상에 깊이 끌리게 된다. 이렇게 영향을 받은 슈트라우스는 '짜라투스트라'를 소재로 한 교향시를 작곡하게 된다.

슈트라우스가 뮌헨오페라극장의 총감독으로 있던 1896년 2월부터 작곡에 착수하여



01\_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02\_ 프리드리히 니체  
03\_ 미구엘 드 세르반테스

같은 해 8월 완성했다. 초연은 슈트라우스 본인의 지휘로 그 해 11월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서 이루어졌다. 슈트라우스는 완성된 이 교향시 총보 머리말에 니체의 원작 서문을 실어 작품의 표제로 했다. 이렇듯 외견상으로도 니체의 저서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교향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그 당시로 보통의

● 글 송종건 영국 런던 리반센터에서 무용정치학, 무용사, 무용미학을 전공하고 「무용예술의 존재론적 특성과 비평」, 「무용 그리고 '움직임의 연기」, 「무용과 비평」등의 저서가 있으며, 현재(무용과 오페라) 발행인겸 작가로 활동중이다.

작곡가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철학의 음악화'를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초연이후 작품에 대한 상반된 의견에 대해 슈트라우스 자신이 밝힌 작곡 의도를 살펴보자: "나는 철학적인 음악을 쓰려고 한 것이 아니며, 니체의 위대한 저작을 음악으로 표현하려고 한 것도 아니다. 음악을 수단으로 인류의 발전 과정을 그 기원부터 다양한 단계를 거쳐 종교적, 과학적으로도 니체의 초인 정신에 도달했음을 음악으로 표현하려는 것이다. 이 교향시는 '니체'라는 천재에 대한 찬사로 계획된 것이다." 슈트라우스의 이러한 의도는 '프리드리히 니체와 자유에 따른 대오케스트라를 위한 교향시'라고 총보에 써넣은 점으로도 확실히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자유롭게 확대된 소나타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자연과 인간 정신을 큰 대립요소로 두고 있다. 자연을 나타낼 때는 가장 자연적이고 소박한 C장조 및 C단조로, 인간 정신을 나타낼 때는 이와는 가장 먼 조성이 B장조와 B단조로 두고 서로 번갈아 등장하면서 대립하며 발전해 나가는 음악기법이 사용되어있다.

이 곡은 C장조 4/4박자로 시작한다. 니체 철학시에 등장하는 마지막 부분 - "이것은 나의 아침이다. 나의 낮이 시작된다. 솟아올라라, 솟아올라라, 니, 위대한 정오여!"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는 그의 동굴을 떠났다. 검검한 산 뒤에서 솟아오르

는 아침 태양처럼 불타는 모습으로 넘침하게 - 에서, 짜라투스트라는 모든 굴레를 벗어나서 진정한 초인으로 거듭나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장면이 나온다. 슈트라우스는 이 마지막 부분을 교향시에서는 시작으로 사용하여 음악으로 엮어낸다. 니체 원작 부분을 연결 시켜 흔히 '일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 유명한 서주부이다. 깊은 심연에서 떠오르듯 조용히 시작하는 오르간의 연주, 점점 더 크고 강력하게 울리는 금관과 팀파니의 연타, 그리고 그 절정으로 한데 모아지는 찬란한 관현악의 총주로 슈트라우스는 교향시 첫 부분에서 묘사하고 있다.

오르간의 지속음 위로 트럼펫이 '자연의 주제'를 시작한다. 그 다음 '후세 사람들에 대하여', '동경의 주제', '종교적 선율', '위대한 동경에 대하여', '환희와 열정에 대하여', '과학에 대하여', '병이 치유되는 자', '자연의 주제', '춤의 노래', '밤의 노래', 마지막 대목인 '밤의 나그네의 노래'까지, 이제 음악은 길고 완만한 하강을 거쳐 B장조와 C장조가 엇갈리면서 인간과 자연의 영원한 대립을 암시한 뒤 C장조의 저음으로 무겁게 끝난다.

전편을 통해 화려한 관현악 선율과 걱정을 선사하며 그 과정에서 인간은 어느새 사상의 구현자이며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초인'로 변화한다. 초인으로 거듭나는 전 과정을 이렇게 음악으로 그려내고 있다.

\* 돈키호테 Op.34

17세기 초 스페인의 문호 세르반테스가 발표한 이 소설 '돈키호테'는 독창적인 발상과 기발한 상징으로 가득한 당시 스페인의 현실을 반영한 일종의 풍자소설이다. 이후 수백년동안 수많은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에 영향을 끼쳤다. 음악 분야만 해도 적어도

25명 이상의 작곡가들이 표제음악, 오페라 등을 작곡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오늘날까지 종종 연주되는 작품은 마스네 오페라 '돈키호테'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정도일 것이다.

슈트라우스는 1897년 12월 뮌헨에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다음 교향시로 '돈키호테'를 완성했다. 전작 '짜라투스트라...'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스타일을 지니고 있다. 음악적으로 결코 모자라지 않으면서도 한결 유머러스하고 여유롭게, 슈트라우스 특유의 철학적 사유를 더욱 성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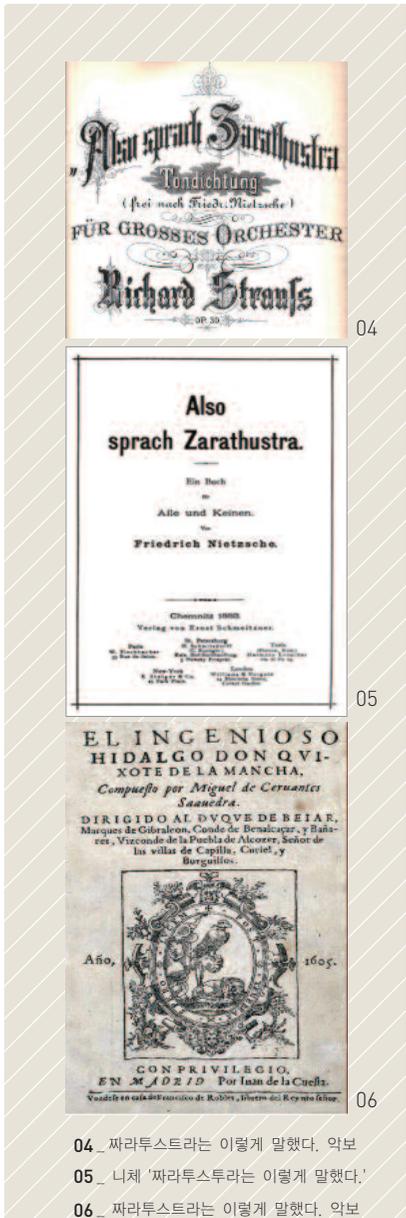
한 음악어법으로 풀어내고 있다. 초연은 1898년 3월 쾰른의 귀체르니하홀에서 프란츠 빌너 지휘로 이루어졌다.

슈트라우스는 이 작품을 '기사적 성격을 지닌 하나의 주제에 의한, 대 관현악을 위한 환상적 변주곡'이라고 불렀다. 표제에서 언급한 '하나의 주제'란 '슬픔에 젖은 기사' 돈키호테를 가리킨다. 작품 구성은 서주, 주제, 10개의 변주, 피날레로 구성되어 있다. 서주에서는 중세 기사의 로맨스를 탐독하는 돈키호테의 모습과 그의 심리상태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그 외에 돈키호테의 몽상, 귀부인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선율들이 등장한다. 주제에서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 '돈키호테'와 산초가 소개된다.

10개의 변주는 돈키호테의 유명한 에피소드들을 슈트라우스 특유의 생생하고 절묘한 관현악 기법으로 묘사하고 있다. 제1변주 '기사의 출발과 거인들과의 격투/풍차들과의 모험'을 시작으로 '아리판파론 대제의 군대와의 전투/양떼와의 전투', '기사와 종자의 대화', '순례의 행렬과 불행한 모험', '밤을 지새며 무기를 지키는 돈키호테', '귀부인과의 만남/가짜 돌시네아', '대기를 가르며 거인족을 정복하다', '마법의 배와 불행한 모험', '두 마법사와의 싸움', '은빛 달의 기사와의 결투' 등 원작 '돈키호테'의 총 123개 에피소드 중에서 10개를 택했다.

피날레에서는 돈키호테의 회상과 죽음으로 돈키호테는 병상에 누워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다가 조용히 숨을 거둔다.

슈트라우스는 소설 '돈키호테'에서 묘사해 놓은 현실과 상상의 세계, 사고의 여러 가능성을 치밀하게 대립시켜 자신만의 관현악법으로 돈키호테의 갖가지 기행을 유머러스하고 다채로운 음색으로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상세하게 그려놓고 있다.



04\_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악보  
 05\_ 니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06\_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악보

# 재미있는 미술사여행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도판 1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잘 몰라도 ‘비너스’라는 여신의 이름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이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은 서구의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대표하고, 예술에서는 가장 이상화한 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지요(도판 1). 그런데, 신화가 생겨나기 훨씬 전에도 비너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최초의 비너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비너스와는 전혀 판판이라 처음에는 당황스럽기까지 하구요. 20세기 초반 오스트리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발견된 구석기 시대의 작은 조각상이 바로 그것입니다(도판 2). 발견된 곳의 지명을 따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는 이름이 붙은 이 조각상은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면 아름답기는커녕, 건강을 위해 당장 체중조절을 시작해야 할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여기에서 비너스라는 명칭을 붙였을까요? 원시인들은 이 조각상을 보며 우리랑 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도대체 고대인들은 왜 이런 조각상을 만들었을까요? 같은 이런 저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인류 최초의 조각’이라는 수식어에 큰 기대를 품고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보면 막상 작은 크기와 불품없는 모습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높이가 약 11센티미터 정도이니, 우리가 흔히 마시는 테이크아웃용 커피컵만한 크기겠네요. 다시 이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구석기 시대에 살았을 이름 모를 조각가의 솜씨가 상당히 훌륭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머리와 가슴, 상체와 엉덩이, 허벅지로 이어지는 둥글둥글한 곡선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리듬감이 느껴지고, 머리와 배꼽, 성기 부분 같은 세밀한 부위는 자세히 조각을 해놓았습니다. 반면에 얼굴은 표현이 안 되었고, 목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팔은 가슴 위에 희미하게 보이는데, 발은 아예 생략되어 몸통에 비해 사지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가슴과 배, 엉덩이는 과장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풍만하게 강조되어 눈길을 끌고 있고요. 왜 선사시대의 조각가는 이런 식으로 조각을 했을까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가 만들어진 구석기 시대에는 아직 문자가 없었고, 그렇기에 우리는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저런 유적을 통해 추측하고 상상할 뿐입니다. 이 시기에는 현생 인류의 조상으로서의 진화



도판 2



도판 3

**도판 1**

〈밀로의 비너스(Venus of Milo)〉, 기원전 130~100년, 대리석, 높이 202cm, 파리 루브르 박물관.

**도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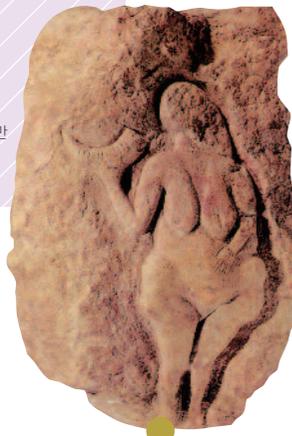
〈빌렌도르프의 비너스(Venus of Willendorf)〉, 기원전 2만8천년~2만5천년, 석회석, 높이 11cm, 비엔나 미술사박물관. (메인 그림)

**도판 3**

〈알타미라 동굴벽화(Cave Painting of Altamira)〉

**도판 4**

〈로셀의 비너스(Venus of Laussel)〉, 기원전 2만~1만8천년, 석회석, 높이 43cm, 보르도 아키텐 박물관.



도판 4

가 진행되었고, 두뇌가 발달하면서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을 하고, 더 나아가 이런 저런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졌습니다. 구석기인들은 직접 보행을 했고, 수렵과 채집으로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짐을 짓지 않고, 대개 동굴에서 생활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 또 동굴의 깊숙한 곳에 들어가 벽에다가 들소나 영양 같은 동물을 그리기도 했는데, 아마도 사냥에서의 성공을 기원하는 일종의 종교 의식이 아니었을까 합니다(도판 3).

〈빌렌도르프의 비너스〉가 어디에서 유래했고,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이와 비슷한 조각상이 여럿 만들어졌고, 가슴이나 배, 골반 같은 특정 부위를 강조한 것으로 보서는 아마 풍요로움과 다산을 기원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도판 4). 구석기인들의 삶은 항상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시무시한

맹수에게 공격을 당할지도 알 수 없고, 아직 농사를 짓지 않았기에 먹을 것도 항상 있지 않았습니다. 동굴집은 허허벌판보다야 낫지만 불편하고 엉성했을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최대한 자손을 많이 낳아 집단을 크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야 사냥에서 성공할 확률도 높아질 테고, 그 이전에 영아 사망률도 높았고, 성장해도 오늘날처럼 오래 살지도 못했던 때이니 말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뚱뚱하다 싶을 정도로 지방이 많은 몸이 부와 아름다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구석기인들은 이런 여성은 아이도 많이 낳을 수 있을 만큼 튼튼하리라 여겼던 같습니다. 아직도 오지에 사는 원시 부족 중에는 이런 풍습이 있는 곳이 있다고 하니, 아주 틀린 추측은 아닐 겁니다.

처음 보았을 때 우리 눈에 낯설어 보인 특

징들이 이제야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 조각상을 만든 이에게는 개인의 특성을 살린 얼굴 보다는, 풍만한 몸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커다란 가슴과 엉덩이, 임신이라도 한 듯 부풀어 오른 배는 다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에, 이토록 두드러지게 표현되었을 것입니다.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나 다른 조각상들에는 칠해진 붉은 흙이 이런 추정에 힘을 실어주는데, 왜냐하면 붉은 색은 생명의 근원인 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동굴에 살던 구석기인들은 이 발 없는 작은 조각상을 손에 쥐고

다산을 기원하는 의식을 하지 않았을까요. 동굴 깊숙한 곳에 여러 가지 동물들을 그려놓고 사냥에서의 성공을 기원했듯 말입니다.

비록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아름다운 비너스 여신처럼 오늘날의 기준에서

아름답지는 않다 하더라도,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서, 원시인들에게는 충분히 아름다운 여신이었을 겁니다. 이 작은 조각상에 깃든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소망과 염원을 상상해 보는 것도 흥미롭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조각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술 품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의미를 담은 인류학적 자료일 겁니다. 특별한 의미와 가치가 없었다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시간과 정성을 들여 이를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 글 황주영

미술 칼럼니스트로 미술사와 정원사 관련 다양한 학회 논문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 번역과 집필, 강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함께하는 음악이야기

# 라흐마니노프에 빠지다



20세기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찬사와 존경을 받았던 블라디미르 호로비츠(1903~1989, Vladimir Horowitz)가 1982년 런던에서 연주회를 가지며 작곡가 라흐마니노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내가 아는 한 가장 위대한 인간이자 위대한 작곡가이며 또한 위대한 피아니스트였다.”

이는 라흐마니노프에 대한 호로비츠의 무한한 애정과 존경을 느낄 수 있는 말인데 굳이 호로비츠의 말을 빌려 오지 않더라도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에 대한 현대인들의 사랑은 뜨겁다.

## 건반 위의 거장 라흐마니노프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1873~1943, Sergei Rachmaninoff)는 유명한 작곡가이기 이전에 스스로가 뛰어난 피아니스트였다. 뚜렷한 이목구비에 190cm 장신의 거구였고 무엇보다 손이 크기로 유명했다. 한꺼번에 13개의 건반을 짚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가 ‘거미 손가락증’으로 불리는 마판증후군(Marfan syndrome)이라는 질병을 앓았기 때문이란 얘기도 있다.

이 질환은 손가락을 길고 유연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어 피아노 연주에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라흐마니노프가 자신의 손가락에 맞게 작곡한 그의 곡을 다른 피아니스트가 제대로 연주하기란 어려울 수 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다. 여튼 그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피아

노 협주곡 2번과 3번을 비롯한 피아노곡들과 보칼리제 등의 여러 가곡, 관현악곡, 현악 독주곡들이 있지만 그의 작품으로 주목 받는 작품들은 대다수가 피아노를 위한 곡이다. 이것은 그만큼 라흐마니노프가 작곡가이기 이전에 훌륭한 건반 비르투오소였던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피아노 연주에 있어 놀라운 기교를 가졌던 라흐마니노프는 자신의 곡 연주는 물론이고 베토벤, 슈만, 쇼팽, 리스트, 차이코프스키 등의 작품을 독자적으로 해석했다. 특히 미국으로 이주를 한 후에는 자신의 작품들과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을 편곡 연주하며 피아니스트로 큰 인기를 누렸고 당대의 유명한 성악가 표도르 샬리아핀(1873~1938, Fyodor Ivanovich Chaliapin)의 반주를 하면서 반주자로서도 명성을 얻었다. 라흐마니노프에게 피아노 연주와 작곡은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음악 세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불가분의 작업이 아니었을까 싶다.

### 피아노 협주곡 2번 & 3번

라흐마니노프의 창작은 11살 때부터 시작됐다. 20대 초반까지는 대부분 피아노를 위한 소품을 작곡했고 특히 자신의 음악적인 재능을 인정해준 차이코프스키의 작품을 연탄곡으로 편곡하기도 했다. 이 시기의 대표작은 1892년에 작곡된 5곡의 '환상적 소품' 가운데 세 번째 곡인 '전주곡 c 샹다조'를 들 수 있고 1901년부터 1917년까지의 기간에 가장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쳤다. 그 가운데 그의 대표작을 꼽자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피아노 협주곡 2,3번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 두 작품을 이야기하자면 그의 교향곡 1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라흐마니노프는 24살 때인 1897년에 교향곡 1번의 초연 무대를 가졌다. 당시에 비평가로부터 굉장한 혹평을 받았다고 하는데 초연을 맡은 글라주노프가 제대로 단원들 연습을 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주 당일 술에 취해 초연이 아주 참담했다고 한다. 처음 교향곡이란 장르에 도전해 했던 라흐마니노프는 이 일로 극심한 우울증으로 앓았고 연주활동은 했지만 작곡은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이 컸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는데 니콜라이 달 박사의 최면 치료 덕에 그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이 탄생하게 됐고 이후 독일의 드레스덴으로 옮겨 1909년 '피아노 협주곡 3번'이 세상에 나오게 됐다. 그리고 이 피아노 협주곡 3번은 미국에서 연주하기 위해 작곡했다고 라흐마니노프가 말했었는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였는지 라흐마니노프는 피아니스트로 전 미국을 연주여행하며 원숙한 피아노 연주로 들려줬다. 이 작품은 이미 초연

당시부터 표현하기 어려운 기교들로 인해 연주불가능이란 관정을 받았지만 음악적으로 2번 협주곡보다 한 단계 진일보했다는 평을 받으며 그의 대표작으로 자리매김했고 이 두 피아노 협주곡은 지금도 많은 영화나 드라마, CF의 배경음악으로 자주 삽입되면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 망명생활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에 담긴 우울과 애수어린 정서는 그의 파란만장한 삶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귀족 집안에서 부유하게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집안이 몰락해 귀족학교에 들어가지 못했고, 일찌감치 작곡가로서 이름을 알렸지만 의욕적으로 쓴 교향곡 1번이 실패하면서 3년 동안이나 우울증에 시달렸다. 비록 피아노 협주곡 2번의 성공으로 우울증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미국으로 이주해 정착한 라흐마니노프는 향수병에 시달려 작곡을 거의 중단했다. 20년 가까운 세월동안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유럽을 돌며 피아니스트로 1000여회의 연주회를 하며 가족 부양을 했고 다행히 말년에 스위스에서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1931)' 과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Op.43(1934)' 등의 몇몇 작품을 완성했지만 망명 생활 내내 조국 러시아를 그리워하다 1943년 70세의 나이로 미국의 비버리힐즈에서 생을 마감했다.

###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세계

라흐마니노프가 활약했던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은 세계 음악계에 급격한 변화의 물결이 일던 시기였다. 러시아 작곡가인 스트라빈스키를 비롯해 프랑스 인상주의 작곡가인 드뷔시나 라벨, 스크리아빈, 그리고 쇤베르크를 선두로 한 음렬주의 음악이 대세를 보였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도 라흐마니노프는 19세기 후반부터 이어져온 후기 낭만주의 양식을 이어가며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 라흐마니노프는 쇼팽, 멘델스존, 리스트, 차이코프스키를 잇는 최후의 낭만주의 작곡가로서 자신만의 예술적 지향점을 음악으로 녹여냈고 그가 표현한 선율들은 듣는 사람 저마다의 삶의 희노애락으로 다가갔다. 그래서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지금도 그의 음악은 사람들 가까이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

● 글 김수연

KBS 울산라디오 「리브 클래식」 등, 라디오·TV프로그램 진행 및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

# 공연가이드

## PERFORMANCES

### 제48회 처용문화제

공연정보 10. 2(목) 19:30  
10. 3(금) 18:30  
10. 4(토) 19:00  
10. 5(일) 17: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처용문화제 추진위원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월드뮤직공연 2~4회

### 제48회 처용문화제

공연정보 10. 2(목) 18:30  
10. 3(금) 18:00  
10. 4(토) 18: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처용문화제 추진위원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월드뮤직공연 2~4회

### 제48회 처용문화제

공연정보 10. 2(목) 20:00  
10. 3(금) 20:00  
10. 4(토) 16:30  
10. 5(일) 16:30  
야외공연장  
공연주최 처용문화제 추진위원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월드뮤직공연 2~4회

### 남구 구립교향악단 가을음악회 '영화음악의 밤'

공연정보 10. 7(화)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남구구립 교향악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클래식 및 오페라 등을 통해 울산시민들의 정서 함양 및 지방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섬

### 도산성전투 '태화강 복소리'

공연정보 10. 11(토) 15:30, 19:30  
10. 12(일) 15:30,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유 뮤지컬컴퍼니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본 작품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붓 대신 칼을 든 선비와 농기구를 들고 분연히 의병에 참가한 울산 239의사와 무명용사들의 이야기를 나열해보고자 하였다.

### 제11회 아이노스합창단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0. 14(화)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아이노스합창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현대 오페라를 작곡하는 음악인들과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음악에 대한 도전과 오페라 대중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제34회 울산예술제 '서막 축하공연'

공연정보 10. 15(수) 19:00 대공연장  
공연주최 한국예총 울산광역시연합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제34회 울산예술제 개막선언 및 축하공연

### 제5회 금파 국악예술단 정기 연주회

공연정보 10. 15(수)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금파 국악예술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가야금 합주와 주중곡, 독주곡으로 다양한 국악 공연, 가요메들리와 민요메들리로 관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연

### 제5회 울산다문화합창단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0. 17(금) 19:0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다문화 가정 사랑 나눔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 다문화인들의 지속적인 음악활동으로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 및 나라별 문화를 전달하고, 한국문화의 이해를 통한 화합 및 인식개선에 이바지함.

### 제8회 국악연주단 민들레 정기연주회 '同樂-season8'

공연정보 10. 19(일) 17:00 대공연장  
공연주최 국악연주단 민들레  
입 장 료 전석 10,000원  
공연개요 국악실내악의 성악곡과 기악곡을 창작하여 참신한 공연양식을 개발함으로써 우리음악의 발전적인 모습을 관객과 나누고자 하는 의미로 만든 공연

### 제34회 울산예술제 '연극협회 합동공연'

공연정보 10. 19(일)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한국예총울산광역시 연합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연극협회 회원들의 합동공연

### 울산청춘합창단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0. 21(화)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청춘합창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지역 발전을 위한 합창으로 대중적인 고들로 구성하여, 음악의 대중화를 위한

# 공연가이드

PERFORMANCES

## Image 2014 무용문화를 만나다 - 나의스승 어머니 -

공연정보 10. 22(수)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임연희 무용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무용예술에 대한 관객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여러장르의 예술을 접목시킴으로써 현대무용의 다양성을 구축하여 무용예술교육의 확장성을 이루고, 연극적요소 음악적요소 미술적 요소를 하나의 통합적 움직임예술로서 역동성을 가지고 서정적으로 관객과의 유대를 가지고자 함

## 2014년 울산YMCA 소년소녀 합창단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0. 24(금)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YMCA소년소녀 합창단  
입 장 료 전석 10,000원  
공연개요 울산 YMCA소년소녀합창단의 정기 공연으로서 어린이합창의 맑고 깨끗함을 느낄 수 있는 공연

## 3DIVA 뮤지컬 갈라콘서트

공연정보 10. 26(일) 18:00 대공연장  
공연주최 JCN울산중앙방송  
입 장 료 R석 65,000원  
S석 55,000원  
공연개요 세명의 여성이 주축으로 된 뮤지컬 갈라콘서트 작년기준 최정원, 홍지민, 박해미 출연

## 제34회 울산예술제 '국악의 밤'

공연정보 10. 30(목)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한국예총울산광역시 연합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관악 관현악 창작곡 및 울산주제에 의한 대중가요

## 제19회 울산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0. 23(목)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윈드오케스트라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관악을 전공한 음악교사, 일반시민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관악인들로 구성된 윈드오케스트라의 열아홉번째 정기연주회

## 제34회 울산예술제 '제15회 어울림콘서트'

공연정보 10. 24(금)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한국예총울산광역시 연합회  
입 장 료 무료  
프로그램 울산예술제 일환으로 열리는 빅밴드 연주회는 팝, 재즈, 영화음악, 국악, 합창 등의 다양한 형태의 연주곡(음악)을 소개

## 제34회 울산예술제 '한국 가곡의 밤'

공연정보 10. 28(화)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한국예총울산광역시 연합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한국 가곡의 밤

## 2014 서덕출 · 신고송 동요합창제

공연정보 10. 31(금)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동요사랑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동요문화의보존과발전을위해주 옥같은서덕출시인과신고송시인의시를새롭게동요로만들어 울산어린이합창단을초빙해합창으로발표  
\*2014년울산광역시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선정

## 제34회 울산예술제 '제29회 울산무용협회 정기공연'

공연정보 10. 23(목)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한국예총울산광역시 연합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한해 동안 울산무용협회 회원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공연

## 제9회 화개 김영옥 무용단 정기공연

공연정보 10. 25(토) 19:00 소공연장  
공연주최 화개 김영옥무용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영남지역 및 울산지역의 지방색체를 살려 멋고 흥, 맺음과 풀림을 소통하고자 안무 중점을 둠

## 제34회 울산예술제 '제19회 가을밤 문학축제'

공연정보 10. 29(수) 19:00 소공연장  
공연주최 한국예총울산광역시 연합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시낭송과 가곡 및 삼중주단 연주 그리고 간단한 무대공연을 하는 행사

# 전시가이드

EXHIBITION

## 울산일요화가회 회원전

전시기간 10. 1(수)~10. 6(월), 6일간  
 전시장소 제2,3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일요화가회 (임안택)  
 전시내용 울산일요화가회 정기전시회로, 독특한 자기 발상적 사고와 감성을 바탕으로 표현된 서양화 작품 40점 전시

## 제13회 최병문 개인전

전시기간 10. 1(수)~10. 6(월),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개 인 (최병문)  
 전시내용 일상을 살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현대미술의 다양한 매체와 기법을 통해 표현한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현대미술 작품 25점 전시

## 제3회 굿 포토클럽 회원전

전시기간 10. 8(수)~10. 13(월), 6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굿 포토클럽 (도재수)  
 전시내용 울산에서 활동하는 전문작가 및 취미로 활동하는 사진가들로 구성된 굿 포토클럽의 두 번째 정기전으로 '물'을 테마로 한 심오하고 창의적인 사진작품 80점 전시

## 제20회 참빛사진동호회 회원전

전시기간 10. 8(수)~10. 13(월), 6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참빛사진동호회 (김정환)  
 전시내용 참빛사진동호회 20회 정기회원전으로, 울산시 일원과 영남지역의 아름다운 풍경과 감동적인 행사를 사진으로 재조명하고, 회원14명의 사진작품 40점을 전시

## 울산미협 한글서예분과 창립전

전시기간 10. 8(수)~10. 13(월), 6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울산미협 한글서예분과 (김봉석)  
 전시내용 울산미술협회 한글서예분과 창립전으로 한글서예를 연구해온 작가들이 한글서예의 다양한 표현과 실험적 시도 등 서예작품 30점 전시

## 〈제34회 울산예술제〉 울산미술협회 회원전

전시기간 10. 15(수)~10. 20(월), 6일간  
 전시장소 제1,2,3,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예총연합회 (한분옥)  
 전시내용 제33회 울산예술제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하는 미술전으로 울산미술협회 회원들의 미술작품 250점 전시

## 〈제34회 울산예술제〉 울산건축가협회 회원전

전시기간 10. 22(수)~10. 27(월), 6일간  
 전시장소 제1,2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예총연합회 (한분옥)  
 전시내용 제34회 울산예술제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하는 건축전으로 울산건축가협회 회원들의 건축 작품 50점 전시

## 제17회 울산광역시건축대전

전시기간 10. 22(수)~10. 27(월), 6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울산건축가협회 (김동관)  
 전시내용 울산 및 인근지역의 건축가들의 지역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한 건축대전으로 주니어와 시니어 부문으로 나뉘어 공모 접수하며, 입상작품 100점 전시

## 6대 광역시 건축 교류전

전시기간 10. 22(수)~10. 27(월),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건축가협회 (김동관)  
 전시내용 6대 광역시 각 지역의 건축가회 회원들의 작품을 전시하여 울산시민들에게 건축에 대한 의식고취와 건축문화 함양을 위하여 작품 70점 전시

## 〈제34회 울산예술제〉 울산사진작가협회 회원전

전시기간 10. 29(수)~11. 3(월), 6일간  
 전시장소 제1,2,3,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예총연합회 (한분옥)  
 전시내용 제34회 울산예술제 기념행사 일환으로 마련하는 사진전으로 한국사진작가협회 울산광역시지회 100여명의 회원들이 1년 동안 활동한 창작 사진작품 200점 전시

# 10\_ 대공연장

# 10\_ 소공연장 · 야외공연장

01		01	
02	· 제48회 처용문화제 10. 2(목) 19:30	02	· 제48회 처용문화제 10. 2(목) 18:30   야외공연장   · 제48회 처용문화제 10. 2(목) 20:00
03	· 제48회 처용문화제 10. 3(금) 18:30	03	· 제48회 처용문화제 10. 3(금) 18:00   야외공연장   · 제48회 처용문화제 10. 3(금) 20:00
04	· 제48회 처용문화제 10. 4(토) 19:00	04	· 제48회 처용문화제 10. 4(토) 18:30   야외공연장   · 제48회 처용문화제 10. 4(토) 16:30
05	· 제48회 처용문화제 10. 5(일) 17:30	05	야외공연장   · 제48회 처용문화제 10. 5(일) 16:30
06		06	
07	· 남구 구립교향악단 가을음악회 '영화음악의 밤' 10.7(화) 19:30	07	
08		08	
09		09	
10		10	
11	· 도산성전투 '태화강 북소리' 10. 11(토) 15:30, 19:30	11	
12	· 도산성전투 '태화강 북소리' 10. 12(일) 15:30, 19:30	12	
13		13	
14		14	· 제11회 아이노스합창단 정기연주회 10.14(화) 19:30
15	· 제34회 울산예술제 '서막 축하공연' 10. 15(수) 19:00	15	· 제5회 금파 국악예술단 정기 연주회 10.15(수) 19:30
16		16	
17		17	· 제5회 울산다문화합창단 정기연주회 10. 17(금) 19:00
18		18	
19	· 제8회 국악연주단 민들레 정기연주회 '同樂-season8' 10. 19(일) 17:00	19	· 제34회 울산예술제 '연극협회 합동공연' 10. 19(일) 19:30
20		20	
21	· 울산청춘합창단 정기연주회 10. 21(화) 19:30	21	
22		22	· Image 2014 무용문화를 만나다 - 나익스승 어머니 - 10.22(수) 19:30
23	· 제19회 울산원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0. 23(목) 19:30	23	· 제34회 울산예술제 '제29회 울산무용협회 정기공연' 10. 23(목) 19:30
24	· 2014년 울산YMCA 소년소녀 합창단 정기연주회 10. 24(금) 19:30	24	· 제34회 울산예술제 '제15회 어울림콘서트' 10. 24(금) 19:30
25		25	· 제9회 화개 김영옥 무용단 정기공연 10. 25(토) 19:00
26	· 3DIVA 뮤지컬 갈라콘서트 10. 26(일) 18:00	26	
27		27	
28		28	· 제34회 울산예술제 '한국 가곡의 밤' 10. 28(화) 19:30
29		29	· 제34회 울산예술제 '제19회 가을밤 문학축제' 10. 29(수) 19:00
30		30	· 제34회 울산예술제 '국악의 밤' 10. 30(목) 19:30
31		31	· 2014 서덕출 · 신고송 동요합창제 10. 31(금) 19:30

공연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0월의  
공연·전시  
Performances & Exhibition

# 10\_ 전시가이드

	1전시장	2전시장	3전시장	4전시장	상설전시장	야외전시장
01		· 울산일요화가회 회원전 10. 1(수)~10. 6(월) 6일간		· 제13회 최병문 개인전 10. 1(수)~10. 6(월) 6일간	· 올해의 작가 개인전 - 이귀동展 10. 1(수)~10. 30(목) 30일간	· 전국야외조각 초대展 Ⅲ부 10.9(목)~'15.1.31(토) 115일간
02						
03						
04						
05						
06						
07						
08	· 제3회 굿 포토클럽 회원전 10. 8(수)~10. 13(월) 6일간	· 제20회 참빛사진동호회 회원전 10. 8(수)~10. 13(월) 6일간	· 울산미협 한글서예분과 창립전 10. 8(수)~10. 13(월) 6일간			
09						
10						
11						
12						
13						
14						
15	· <제34회 울산예술제> 울산미술협회 회원전 10. 15(수)~10. 20(월) 6일간					
16						
17						
18						
19						
20						
21						
22	· <제34회 울산예술제> 울산건축가협회 회원전 10. 22(수)~10. 27(월) 6일간		· 제17회 울산광역시 건축대전 10. 22(수)~10. 27(월) 6일간	· 6대 광역시 건축 교류전 10. 22(수)~10. 27(월) 6일간		
23						
24						
25						
26						
27						
28						
29	· <제34회 울산예술제> 울산사진작가협회 회원전 10. 29(수)~11. 3(월) 6일간					
30						
31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당신의 불링블링한 ART스타일 완성!

Always, with you

항상 당신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항상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당신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삶의 소박한 여유  
가슴 속에서 퍼져 나오는 감동  
울산문화예술회관이 함께 합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매달 마지막 수요일)

— 공연할인

뒤란(실내공연) 및 예술단 공연 50% 할인,  
대관공연 할인 권고

— 전시장 야간개장(오후 10시까지)

갤러리 ‘쉽’, 제1전시장(회관기획전시)  
대관전시 권고

문예회원에 가입하면 공연정보와 할인혜택이 솔~솔~

회원의 종류

가입 기간	청소년회원	일반회원	가족회원 (4인기준)	단체회원 (10인기준)
1년	1만원	2만원	4만원	10만원 (1인추가시 1만원)
3년	2만5천원	5만원	10만원	25만원 (1인추가시 2만5천원)
5년	4만원	8만원	16만원	40만원 (1인추가시 4만원)
10년	7만5천원	15만원	30만원	75만원 (1인추가시 7만5천원)

가입방법

- 인터넷 : 회관 홈페이지(<http://www.ucac.co.kr>)
- 전 화 : 052)226-8274
- 방 문 :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 대공연장 매표소  
※ 전화·방문 가입은 평일 9시부터 18시 사이에 가능하며,  
홈페이지에도 가입을 하셔야 회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비납부

- 인터넷 가입시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
- 은행납부 : 경남은행 540-07-0183857 / 울산문화예술회관  
농 협 317-8245-8245-41 / 울산문화예술회관  
※ 은행납부는 지정계좌 입금 후 전화로 확인

회원혜택

-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무료 우송
- 회관기획공연 및 시립예술단공연 30% 할인 (일반 2매, 가족 4매, 청소년·단체 1매)
- 회원을 위한 특별기획공연 초대 (일반 2매, 가족 4매, 청소년·단체 1매)
- 대관공연 시 주최 측과 협의하여 5%~30% 이내 할인
-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회원가입비 10%, 회관주최 공연 입장료 5%)  
※ 마일리지 포인트로 회관 주최 유료공연 입장권 구매 가능
- 이메일 및 SNS로 공연정보 제공 등
-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052-226-827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친구가 되어 주세요!!  

- 울산문화예술회관 트위터(@ulsanart)와 페이스북(ID:Ulsanartcenter)에 친구 신청을 하시면 빠른 티켓 오픈 정보와 공연, 전시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www.ucac.co.kr](http://www.ucac.co.kr))를 방문하시면 친구 신청이 쉬워집니다.

---

울산시립무용단  
2014 기획공연



---

2014. 10. 10(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